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기조절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Internet Addiction,
Attachment to Parents and Self Control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한 유 진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공
전임강사 최 나 야*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Han, Eu-Gen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ull time Instructor : Choi, Na-Y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their self control to Internet addic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338 elementary students, 371 junior high students, and 342 high school students of Kyunggi province. They were categorized into 3 groups by their aptitude to Internet addiction: serious addicts, potential addicts, and non-addicts.

According to the results, older students showed higher tendency toward Internet addiction, and more insecure attachment to their parents. More than 20% of participants were disposed to addiction to the Internet, indicating that immediate intervention should be applied. Significant variables to explain students' Internet addiction were differentiated along their developmental levels. Attachment to parents was related to the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tudents, while self control was more critical for high school students' addiction.

▲주요어(Key Words) : 인터넷 중독(addiction to the Internet), 애착(attachment), 자기조절(self control)

I. 서 론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체 가구의 73.6%인 3,482만 가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가정에서 뿐 아니라 PC방이

라는 독특한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근성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본 기능이 되었고, 쇼핑과 교육의 기능을 넘어 사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로 학교와 학원에서 의 사용도 늘어나 6-19세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김영혜 등, 2007).

* 교신저자 : 최나야 (E-mail : choinaya@catholic.ac.kr)

인터넷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될 만큼 학업적, 직업적,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Brenner, 1997; Morahan-Martin & Schumacher, 1997; Scherer & Bost, 1997; Thompson, 1996; Young, 1999).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인터넷 이용률 통계 자료와 어디서나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인터넷 중독을 한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인터넷 중독의 개념은 Goldberg(1995)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Young(1996)은 그 개념을 확장하여 '인터넷의 강박적인 과다 사용과 비사용시의 과민하거나 침울한 행동'을 인터넷 중독 장애(IAD)로 정의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통제 불가능한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에서 심리적, 사회적, 학업·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라는 보다 총체적인 정의를 선호하고 있다(Cao et al., 2007).

그러나 인터넷 중독의 개념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단계이며(Yang & Tung, 2007), 인터넷 중독의 하위 차원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을 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 인터넷 강박증, 정보 중독, 컴퓨터 중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통신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어기준·조아미, 2000)과 음란물 중독, 음란채팅 중독, 폭력게임 중독(이해경, 2002), 그리고 게임 중독, 통신 중독, 인터넷 섹스 중독 등(성운숙, 2004)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 게임 중독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유형으로, 간혹 게임 중독으로 인터넷 중독을 대표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은 위의 여러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 중독과 포괄적인 의미의 인터넷 중독을 구별하여야 하며 연구의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중독은 여러 하위 유형이 포함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최근 10여 년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변인 중에서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인터넷 중독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구은정, 2003; 김혜정, 2003; 송원영, 1999; 오경하, 2002; 장재홍, 2007; 전춘애 등, 2008; 정민희, 2003; 조혜연, 2001; Young, 1996). 특히 자기통제는 인터넷 중독의 가장 강력한 영향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송원영, 1999; 우형진, 2007b; 이경남, 2003).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아지며(이계원, 2001; 이상

주·이약희, 2004), 자기통제력이 약한 아동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고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이경남, 2002). 자기통제력과 대화개방성이 낮은 초·중등학생 모두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영향력이 더욱 컸다(나은영 등, 2007).

자기조절 능력은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으며(이경남, 2000),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ogue, 1995). 이러한 정의를 통해 '조절'이 '통제'보다 광범위한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은 인터넷이 주는 쾌락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학업과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반면,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과 청소년은 인터넷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중독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학업성취와 다른 능력을 신장하고 미래의 직업 탐색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자기조절 능력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김혜정, 2003; 박재성, 2004; 양미경·오원옥, 2007; 이선미·이승희, 2008; 최나야·한유진, 2006)에서는 주로 순간적인 충동을 통제하는 통제능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이 논문에서는 만족을 통제하고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조절을 정서·인지적 차원과 행동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인 자원이다. 자녀를 믿고 관심을 표현하며 자녀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인적 자원 중에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양육태도 등의 부모 변인은 다른 변인들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김진희, 2003; 김연화·정영숙, 2005; 신수정·장윤옥, 2007; 이경남, 2003).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획득인데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과 지지를 인터넷을 통해 원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의존할 수 있다. 부모 변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갈등이 많을수록(권정혜, 2005; 김교현, 2001; 안석, 2000). 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경험하거나 긍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경험할수록(김경신·김진희, 2003; 김연화·정영숙, 2006; 최나야·한유진, 2006; 홍세희 등,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일수록(김혜원, 2001; 윤영민, 2000) 자녀가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부모관련 변인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과 부모애착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아버지와 애착정도 보다 자녀의 중독 정도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영혜 등, 2007)와 자녀의 인터넷 사용지도와 감독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최나야·한유진, 2006)가 서로 엇갈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각각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관련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Brenner, 1997), 어린 집단의 인터넷 중독 위험이 더 높다(Thatcher & Goolam, 2005)는 연구결과는 어린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어린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매체 사용의 적응력이 높은 반면, 만족을 지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하다. 따라서 발달 초기에 아동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방지한다면 인터넷 중독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성인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초등학교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중독이 진행되기 이전, 예방적 활동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임지영·유정미, 2003),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넓은 연령층을 연구하면 인터넷 중독의 발달적 추이와 발달단계별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연령별로 보다 효과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들은 예방적 측면보다는 인터넷 중독 집단의 특성 탐색이나 중독 집단을 위한 치료 및 상담에 무게를 두어왔다. 프로그램 연구 역시 중독군을 선별한 후 이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양미경·오원옥, 2007). 이미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치료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직 중독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험상태에 있는 잠재적 중독집단을 함께 연구하면 다음 단계인 중독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중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 잠재적 중독 집단 및 비중독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집단을 가려내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들 중 인터넷 중독 집단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가려내어 이들이 부모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애착과 자기조절능력이 비중독집단과 비교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기조절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중·고생 집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초·중·고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은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 중산층 밀집겨주 지역의 29개교에서 표집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생 총 1051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1) 부모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또래 애착척도의

<표 1> 연구 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

(N=1051)

학 교	학 년	성 별		합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4	47	58	105
	5	57	64	121
	6	50	62	112
중학교	1	52	60	112
	2	54	65	119
	3	45	95	140
고등학교	1	92	98	190
	2	122	30	152
합		519	532	1,051

개정본(IPPA-R)을 참고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척도를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재구성하였다. 신뢰(8문항), 분리(7문항), 의사소통(4문항)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19문항).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한 애착 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907$ 과 $.904$ 이었다.

2) 자기조절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Self control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 평정척도를 참고, 수정한 남현미(1998)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자기통제'라는 변수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동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자기조절'로 명명하였으며 각 문항들의 표현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자기조절의 하위 영역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서·사고 조절(9문항)과 행동조절(8문항)의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총 17문항).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8$ 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중독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9문항), 현실구분장애(3문항), 긍정적 기대(6문항), 금단(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지향(5문항), 일탈행동(6문항), 참을성(5문항)의 전체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생활장애 영역은 불규칙한 생활, 건강 악화 등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현실구분장애 영역은 환상과 환청 등을 포함하며, 긍정적 기대 영역은 인터넷에 의존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을 측정한다. 금단 영역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의 증상을, 가상적 대인관계지향 영역은 오프라인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탈행동 영역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규칙 위반이나 비행, 참을성 영역은 인터넷 사용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

인터넷 중독 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08$ 이었다. 이 척도의 총점과 영역별 점수 기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비중독군을 구분할 수 있다. 기준은 초등학생과 중·고생에 따라 달라, 초등학생은 총점이 94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82점 이상 94점 미만이면 잠재적 위험군이나, 중·고생은 총점이 108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95점 이상 108점 미만이면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한다.

3. 연구 절차

경기도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각 11, 8, 10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교별로 1개 학급을 임의 추출하였다. 질문지를

담당교사를 통해 배부하고 1시간 후에 회수하였다. 조사는 학년말인 12월에 1주일간 이루어졌다. 회수한 질문지 총 1,078부 중에서 부실 응답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1,051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의 분석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역방향 문항들의 반응을 리코딩하였고, 인터넷 중독,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의 총점 및 하위요인별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비중독군을 구별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척도의 신뢰도 분석, 빈도와 백분율, 카이제곱 검정, 상관 분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초·중·고생 집단별 인터넷 중독 정도, 부모에 대한 애착, 자기조절(<연구문제 1>)

초·중·고생 집단별로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부모에 대한 애착, 자기조절에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인터넷 중독, 부애착, 모애착, 자기조절과 애착의 하위변수인 부신뢰, 부분리, 부의사소통, 모신뢰, 모분리, 모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조절의 하위변수인 정서사고조절과 행동조절 모두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대부분의 하위 요인,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모든 하위 요인에서 초·중·고생 집단 간에 발달적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자기조절과 그 하위 요인인 정서사고조절 및 행동조절에서 초·중·고생 집단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유의한 집단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초·중·고생 집단은 서로 구별되었다($F(2, 1050) = 24.281, p < .001$). 초등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고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 점수를 보였다. 즉, 상위 학교의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장애에서 이와 같은 세 집단 구분이 이루어져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F(2, 1050) = 107.077, p < .001$). 긍정적 기대, 금단, 일탈행동과 참을성의 경우에도 상위학교 집단일수록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긍정적 기대($F(2, 1050) = 5.755, p < .01$)와 금단($F(2, 1050) = 6.023, p < .01$) 요인에서는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서로 유의하게 다른 수준을 보이고, 중학생들은

<표 2> 초·중·고생 집단별 인터넷 중독 정도, 부모에 대한 애착, 자기조절 점수

변 수	평균(표준편차)				F
	초등학생(n=338)	중학생(n=371)	고등학생(n=342)	전체(N=1,051)	
인터넷 중독	59.80(16.97) ^a	64.71(16.74) ^b	68.67(16.15) ^c	64.42(16.99)	24.281***
- 일상생활장애	14.48(3.92) ^a	17.45(4.84) ^b	19.56(4.80) ^c	17.18(4.99)	107.077***
- 현실구분장애	3.62(1.19)	3.55(1.21)	3.68(1.28)	3.61(1.23)	1.021
- 긍정적 기대	9.57(3.78) ^a	10.12(3.87) ^{ab}	10.61(4.24) ^b	10.10(3.98)	5.755**
- 금단	8.43(3.19) ^a	8.80(3.23) ^{ab}	9.29(3.28) ^b	8.84(3.25)	6.023**
- 가상적대인관계지향	8.22(4.41)	8.42(3.26)	8.04(2.67)	8.24(3.51)	1.024
- 일탈행동	7.47(2.13) ^a	8.09(2.71) ^b	8.44(2.63) ^b	8.00(2.54)	12.923***
- 참을성	8.01(3.15) ^a	8.28(3.28) ^a	9.13(3.52) ^b	8.47(3.35)	10.637***
부애착	71.76(12.68) ^a	65.87(14.41) ^b	63.09(13.21) ^c	66.86(13.93)	36.288***
- 부신포	28.78(6.96) ^a	26.04(7.30) ^b	25.14(6.38) ^b	26.62(7.07)	25.485***
- 부분리	28.82(5.15) ^a	27.13(5.47) ^b	25.90(4.99) ^c	27.27(5.34)	26.574***
- 부의사소통	14.16(3.47) ^a	12.70(3.66) ^b	12.06(3.32) ^b	12.96(3.59)	32.152***
모애착	73.82(12.64) ^a	67.96(13.98) ^b	66.89(12.51) ^b	69.46(13.42)	27.235***
- 모신포	29.70(6.88) ^a	26.91(7.09) ^b	26.50(6.01) ^b	27.66(6.83)	22.683***
- 모분리	29.50(5.03) ^a	27.81(5.27) ^b	27.27(4.56) ^b	28.17(5.06)	18.348***
- 모의사소통	14.62(3.39) ^a	13.23(3.61) ^b	13.12(3.30) ^b	13.64(3.51)	19.781***
자기조절	52.75(10.95)	53.48(8.47)	52.87(7.39)	53.05(9.05)	.671
- 정서사고조절	31.51(6.65)	32.63(5.69)	32.56(4.98)	32.25(5.83)	3.980
- 행동조절	21.23(6.10)	20.85(3.93)	20.37(3.68)	20.82(4.69)	2.849

주. a, b, c는 사후검증(Scheffé) 결과임.

** $p < .01$, *** $p < .001$

다른 두 집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일탈행동($F(2, 1050) = 12.923, p < .001$)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참을성($F(2, 1050) = 10.637, p < .001$)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현실구분장애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에서는 학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에 대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모든 연령 집단에서 부애착은 모애착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었다. 부애착($F(2, 1050) = 36.288, p < .001$) 및 그 하위 요인인 부분리($F(2, 1050) = 26.574, p < .001$)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고등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신포($F(2, 1050) = 25.485, p < .001$)와 부의사소통($F(2, 1050) = 32.152, p < .001$)에서도 상위학교로 갈수록 애착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초등학교 집단만 유의하게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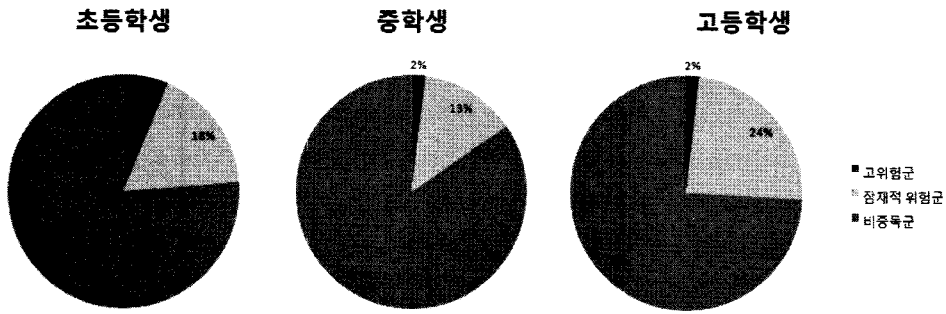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는 종합변수와 하위 요인 모두에서 초등학생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구별되었다. 즉, 모애착($F(2, 1050) = 27.235, p < .001$), 모신포($F(2, 1050) = 22.683, p < .001$), 모분리($F(2, 1050) = 18.348, p < .001$), 모의사소통($F(2, 1050) = 19.781, p < .001$)에서 모두 초등학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비록 집단 구분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모애착 변수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2. 초·중·고생 집단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연구문제 2>)

인터넷 중독 점수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비중독군으로 분류했을 때, 초·중·고생 집단별로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4, N = 1051) = 27.362, p < .001$).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3.2%(34명), 잠재적 위험군은 18.2%(191명)로 이 두 집단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집단이 전체의 21.5%에 달했다.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인터넷 중독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 중에는 놀랍게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61.8%), 잠재적 위험군 중에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42.9%). 위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중독 점수는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높으나, 초등학생과 중·고생에 대한 각각의 중독 집단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이 결과는 연령집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여부와 정도가 다를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에 학교 집단별 인터넷 중독 정도를, <표 3>에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초·중·고생 집단별 인터넷 중독 정도 비교

<표 3> 학교 집단과 인터넷 중독 집단 교차분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고 위험군	인원(명)	21	7	6	34
	중독증상구분 비율	61.8%	20.6%	17.6%	100.0%
	학교구분 비율	6.2%	1.9%	1.8%	3.2%
	전체 비율	2.0%	.7%	.6%	3.2%
잠재적 위험군	인원(명)	59	50	82	191
	중독증상구분 비율	30.9%	26.2%	42.9%	100.0%
	학교구분 비율	17.5%	13.5%	24.0%	18.2%
	전체 비율	5.6%	4.8%	7.8%	18.2%
비 중독군	인원(명)	258	314	254	826
	중독증상구분 비율	31.2%	38.0%	30.8%	100.0%
	학교구분 비율	76.3%	84.6%	74.3%	78.6%
	전체 비율	24.5%	29.9%	24.2%	78.6%
계	인원(명)	338	371	342	1051
	중독증상구분 비율	32.2%	35.3%	32.5%	100.0%
	학교구분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 비율	32.2%	35.3%	32.5%	100.0%

3.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초·중·고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연구문제 3>)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중독 집단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중·고생 집단별로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비중독군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 그리고 이 변수들의 하위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초·중·고생 집단별로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에서는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라 부애착과 모애착에서,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자기조절에서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하위 변수들을 이용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초등학교들은 부신뢰, 부분리, 부의사소통, 모분리와 행동조절에서 중독 집단별 차이가 있고, 중학생들은 부분리와 모분리에서, 고등

학생들은 행동조절이 유의했다. 이 결과는 부모애착과 관련해서는 분리 요인이, 자기조절과 관련해서는 행동조절 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특히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4>에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면, 초등학교 집단에서 고위험군은 비중독군에 비해 부애착($F(2, 1050) = 8.254, p < .001$)과 모애착($F(2, 1050) = 4.007, p < .05$)이 유의하게 낮았고, 잠재적 위험군은 다른 두 집단과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애착의 세 하위 요인 모두 인터넷 중독 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수로 나타나, 초등학교시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중요함을 보여주었다(부신뢰 $F(2, 1050) = 3.147, p < .05$; 부분리 $F(2, 1050) = 10.617, p < .001$; 부의사소통 $F(2, 1050) = 4.614, p < .05$). 반면, 모애착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모분리만이 고위험군을 판별하였다($F(2, 1050) = 7.448, p < .01$). 종합변수로서 자기조절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 요인인 행동조절은 초등학교 인터넷 중독 고위험집단을 가려내었다

<표 4>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 점수

학교구분	변 수	평균(표준편차)				F
		고위험군 (n = 34)	잠재적 위험군 (n = 191)	비중독군 (n = 826)	전체 (N = 1,051)	
초등학생	부애착	64.38(13.54) ^a	67.95(13.00) ^{ab}	73.24(12.18) ^b	71.76(12.682)	8.254***
	- 부신뢰	25.81(8.20) ^a	27.78(6.39) ^{ab}	29.25(6.92) ^b	28.78(6.96)	3.147*
	- 부분리	25.86(5.57) ^a	26.84(5.70) ^a	29.51(4.80) ^b	28.82(5.15)	10.617***
	- 부의사소통	12.71(3.91) ^a	13.33(3.43) ^{ab}	14.47(3.39) ^b	14.16(3.47)	4.614*
	모애착	66.76(13.61) ^a	72.88(12.30) ^{ab}	74.62(12.48) ^b	73.82(12.64)	4.007*
	- 모분리	25.86(5.27) ^a	28.79(5.05) ^b	29.97(4.88) ^b	29.50(5.03)	7.448**
	- 행동조절	18.05(4.87) ^a	19.97(4.23) ^{ab}	21.79(6.43) ^b	21.23(6.10)	5.327**
중학생	부애착	52.86(11.63) ^a	62.82(17.26) ^{ab}	66.65(13.79) ^b	65.87(14.41)	4.521*
	- 부분리	20.71(6.40) ^a	25.46(5.93) ^b	27.54(5.25) ^b	27.13(5.47)	8.349***
	모애착	54.14(12.23) ^a	64.08(17.24) ^{ab}	68.88(13.20) ^b	67.96(13.98)	6.195**
	- 모분리	20.86(6.09) ^a	25.68(6.43) ^b	28.31(4.86) ^b	27.81(5.27)	12.251***
고등학생	자기조절	50.67(10.17) ^a	50.96(6.21) ^a	53.55(7.59) ^b	52.87(7.39)	4.070*
	- 행동조절	18.67(5.72) ^a	19.14(3.29) ^a	20.82(3.66) ^b	20.37(3.68)	7.298**

주. a, b, c는 사후검정(Scheffé) 결과임.

*p<.05, **p<.01, ***p<.001

($F(2, 1050) = 5.327, p<.01$).

중학생들은 부애착과 모애착에 있어서 고위험군과 비중독군이 유의하게 다른 수준을 보였고, 잠재적 위험군은 다른 두 집단과 각각 비슷한 수준이었다(부애착 $F(2, 1050) = 4.521, p<.05$; 모애착 $F(2, 1050) = 6.195, p<.01$). 하위 요인 중에서는 부모 모두 분리 요인에서 고위험군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구분되었다(부분리 $F(2, 1050) = 8.349, p<.001$; 모분리 $F(2, 1050) = 12.251, p<.001$).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자기조절($F(2, 1050) = 4.070, p<.05$), 그 중에서도 행동조절($F(2, 1050) = 7.298, p<.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비중독군이 다른 두 위험 집단과 차이를 보여,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자기조절, 특히 행동조절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두 위험 집단 간에는 자기조절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 1,051명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세 수준으로 가려내고 각 집단의 부모 애착과 자기조절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 부모에 대한 애착, 자기조절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 초·중·고생 집단별로 인터넷 중독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이 인터넷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 집단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분석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고생 집단별로 인터넷 중독과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발달적 차이를 보여, 상위 학교로 갈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중독 여부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것이 아닌, 총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몰입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독립성이 증가하고 또래 집단의 의미가 커지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인터넷 중독 수준 및 예상 관련 변수인 애착은 변화를 보이므로, 연구를 설계하거나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대상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연구 대상 아동과 청소년들 중,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3.2%, 잠재적 위험군은 18.2%로, 전체의 21.5%라는 높은 비율이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 연령의 아동, 청소년들에게서 인터넷 중독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특히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시급한 중재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아직 심각한 중독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중독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비합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예방보다는 치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심각한 수준의 중독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들을 병리적 집단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발달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초·중·고생 집단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비중독군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사용 지도가 연령 집단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고위험군 중에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심각한 결과는 현재의 아동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앞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 지도의 대상 연령층을 낮추어 유아기, 초기 학령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그리고 비중독군을 구별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 그리고 이 변수들의 하위 요인들은 초·중·고생 집단별로 다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부애착과 모애착에서,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자기조절에서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전기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기 후기에는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인터넷 중독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짐을 제안한다.

한편, 애착과 자기조절의 하위 요인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은 부신뢰, 부분리, 부의사소통, 모분리와 행동조절, 중학생들은 부분리와 모분리,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행동조절에서 중독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관련해서는 분리요인이, 자기조절과 관련해서는 행동조절 요인이 인터넷 중독을 특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는 정도에 있어서 이 연구와 같이 세부적인 하위 요인의 구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겠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착은 인터넷 중독 수준을 구분하는 주요한 변수였다. 인터넷이 소외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회피적 대체 역할을 하므로, 부모가 보이는 따뜻한 관심과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경향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의 신뢰관계 및 개방적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김영혜 등, 2007; 정경아·한규석, 2001) 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 차원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신뢰, 분리,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경우 분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분리만이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이는 인터넷의 사용 행동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더 강력함을 예측하게 한다. 즉,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 지도뿐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 지도가 함께 요구됨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녀를 믿어주며, 개방적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등, 애착 관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인터넷 중독 수준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자기조절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일을 결정하면서 심리적 독립을 추구한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보다는 자기의 행동조절 능력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그리고 비중독군의 부모 애착과 자기조절, 그리고 각 변수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각 변수의 점수에 나타난 잠재적 위험군의 지위가 눈길을 끈다. 잠재적 위험군은 일부 변수에서는 고위험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다른 변수들에서는 비중독군과 가까운 수준을 보여 애착, 자기조절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말 그대로 '잠재적'인 중간 수준을 보인다. 앞으로 이 집단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의 특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실제적 적용과 관련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초·중·고생 전 연령에 걸쳐 인터넷 중독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중재가 요구된다. 특히 잠재적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상당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와 관계있는 1차적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부모-자녀 애착 정도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인터넷 중독을 자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적 노력의 접근이 요구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있어 부모 상담이나 부모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신뢰와 정서적 공감 및 의사소통 수준을 높여 안전한 애착을 형성·유지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비합리적인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단지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생산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별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이하므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놀이는 정서적 통제, 지지, 사회적 기술, 개인

간의 상호작용 기술을 증진하는데도 효과가 있어(유미숙, 1997), 인터넷 중독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기조절과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이 높아지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이승희, 2008). 따라서 각 연령에 맞는 놀이들을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넓은 연령에 걸친 일반 아동과 청소년들을 조사하여 그 중에서 가려낸 인터넷 중독 집단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별하고 비중독군과 비교함으로써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초·중·고생 집단별로 부모애착, 자기조절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발달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 변인과 개인 변인이 발달 단계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제시한 이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 중독에 취약한 세대인 요즘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복지적 서비스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서만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불완전한 것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구은정(2003).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상태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67-280.
- 김경신·김진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6(1)**, 15-25.
- 김교현(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와 컴퓨터 중독. 학생생활연구, **28(1)**, 41-62.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연화·정영숙(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0)**, 103-114.
- 김영혜·손현미·양영옥·조영란·이내영(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4)**, 383-389.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 분석: 인터넷 중독중세와 음란행위를 중심으로. 제37회 청소년문제 연구 세미나 논문집, 20-6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혜정(2003). 성적과 자기통제감 및 자기효능감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박소라·김은미(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별 미디어 이용 양식과 적용: 블로그형과 게임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392-524.
- 남현미(1998).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성(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과 자기통제기대의 구조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1(3)**, 1-17.
- 성윤숙(2004).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과 사이버 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35-37.
-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정·장운옥(2007).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5)**, 31-46.
-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오원옥(2007).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통제성과 인터넷게임 사용시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3(3)**, 282-190.
- 어기준(2000). 청소년의 컴퓨터 중독 유형과 제반 문제점. 제19회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경하(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형진(2007b). 미디어 이용자의 자아 안정성, 성향적 미디어 이용동기, 플로우, 그리고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4)**, 101-140.
- 유미숙(1997).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상조사.
- 윤영민(2000). 인터넷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계원(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0). 아동의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와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305-331.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남(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99-118.
- 이상주·이약희(2004).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원인과 결과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5(2)**, 305-332.
- 이선미·이승희(2008). 놀이중심의 자기통제훈련 집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2(2)**, 55-74
- 이해경(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9(1)**, 91-114.
- 임지영 · 유정미(2003). 외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16(1)**, 365-378.
- 장재홍(2007). 청소년의 게임행동 변화 동기 유형에 따른 자기 조절 전략과 변화행동 촉진요소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8(4)**, 1637-1656.
- 전춘애 · 박철옥 · 이은경(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연구. *상담학연구*, **9(2)**, 702-728.
- 정경아 · 한규석(2001). 게임중독 청소년의 특성 분석: 게임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연구. 200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223-228.
- 정민희(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관련 문제점 및 대책. *청소년정책연구*, **2**, 152-179.
- 조해연(2001).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 특성 변인간의 관계. *교육논평*, **17**, 109-133.
- 최나야 · 한유진(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9-219.
-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인터넷통계정보 검색시스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 홍세희 · 박민선 · 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0)**, 129-14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82.
- Cao, F., Su, L., Liu, T., & Cao, X.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Internet addiction in a sample of Chinese adolescents. *European Psychiatry*, **22(7)**, 466-471.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 Diagnostic criteria. <http://www.cog.brown.edu/brochure/people/duchon/humor/internet.addiction.html>.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ogue, A. W. (1995). *Self-control*. N.Y.: Prentice, Hall.
- Morahan-Martin, J. M. & Schumacker, P. (1997).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Schaefer, C. E. (1993). *The therapeutic powers of play*. Northvale, New Jersey: Jason Aronson.
- Scherer, K., & Bost, J. (1997).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August.
- Thompson, S.(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Washington, D.C.
- Thatcher, A., & Goolam, S. (2005). Defining the south African internet 'Addict': Prevalence and Biographical profiling of problematic internet users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5(4)**, 766-792.
- Yang, S., & Tung, C. (2007). Comparison of Internet addicts and non-addicts in Taiwanese high scho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1(1)**, 79-96.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Jackson (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Vol. 17,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접수일 : 2009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04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4월 06일